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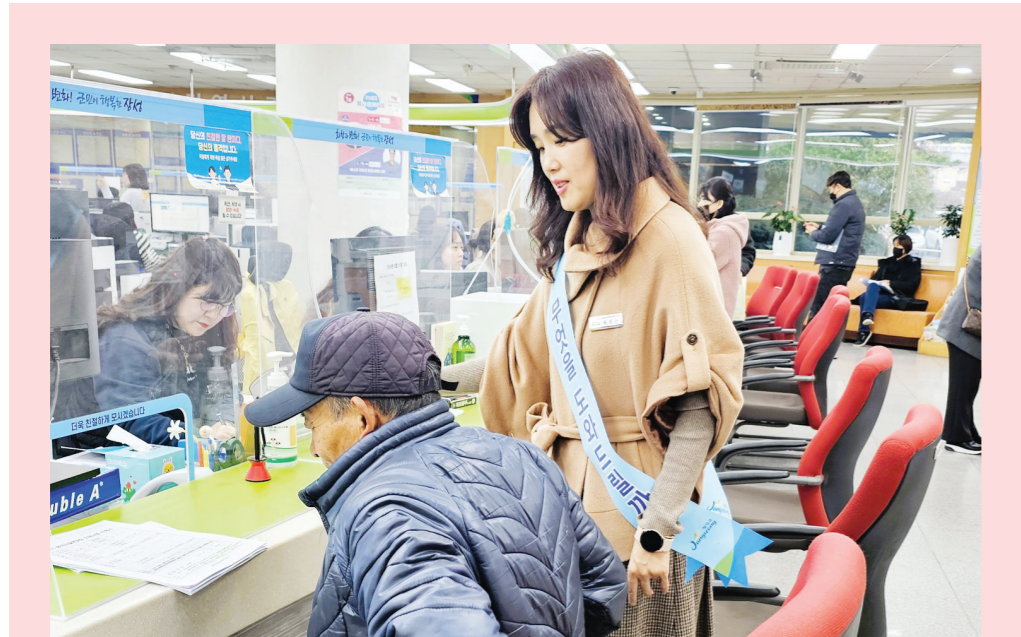
# 곡성군, 제15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 ‘치매기억택시’와 ‘꿈놀자 놀이터 조성’등 대외적 성과 인정 “특화된 우수시책 발굴·맞춤형 사업으로 군민 행복 최선”

곡성군이 1월 30일 개최된 제15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경영대상’은 광남일보에서 주관,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 안전환경, 인적자원 육성 등 7개 부문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 등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

정한다. 곡성군은 총 7개 분야에 응모해 고루 높은 평점을 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관내 거동불편자를 위해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치매기억택시와 ‘인적자원 육성’ 분야에서 어린이가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직접 참여한 꿈놀자 놀이터 조성사업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고, ‘안전환경’분야의 전남 최초로 24시간 산불감시체제를 도입

한 산불 AI기반 ICT플랫폼 구축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 봉사단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업시스템 도입, 청년 웹툰작가의 곡성군 소상공인 홍보웹툰 제작 지원,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단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상철 군수는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곡성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곡성만의 특화된 우수시책 발굴과 맞춤형 사업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장성군 ‘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 제도’ 호평

### 탐장급 공무원이 민원인 친절 응대... 민원인-행정 ‘가교’ 역할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 제도’가 군청 민원실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는 민원봉사과 소속 탐장급 공무원이 일일 도우미를 맡아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운영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오전과 오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 1시간씩만 운영했지만, 올해 들어선 근무시간 전제로 확대해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민원인 임모 씨는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꼼꼼하게 도와줘 손쉽게 일을 마무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원인 응대가 주된 업무지만, 민원인으

로부터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행정 경력 20년 이상의 탐장급 공직자가 ‘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를 맡아 민원인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 제도’ 외에도 △민원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자가학습’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되는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는 ‘달달한 칭찬함’ 설치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장성=김수권기자

## ‘타기 편한 대중교통’ 나주시, 연말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27%확대

### 내달 1일부터 7000~7002번 저상버스 5대 신규 운행

나주시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5대를 도입했다. 2월 1일부터 운행하는 47인승 버스로 ‘혁신도시-나주역-나주터미널-동신대학교’ 노선을 경유하는 7000번, 7001번, 7002번에 도입된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무장애)’ 장치로 꼽힌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 계단을 오

르기 힘들었던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버스 폐차 또는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저상버스 증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도 올 연말까지 20대를 추가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저상버스 5대와 전기 저상버스 20대가 도입되면 현재 나주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2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은 단순 이



동수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우리 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는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가겠다”고 전했다. 나주=기동휘재부

##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디딤돌사업 ‘마을아이디어학교’ 개최

### 전문가, 마을활동가와 마을공동체 21개소 대상 1:1 맞춤 상담 운영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양순애)는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

쳐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마을아이디어학교’를 개최했다. 마을아이디어학교는 지역 내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19일에 진행된 마을아이디어학교 1차

시에는 임교식과 함께 시민운동가이자 거버넌스 전문가인 김하생 소장(사)전문문화콘텐츠연구소)의 ‘마을공동체의 이해 및 사례’에 대한 주제 강의로 채워졌다. 2차(26일)와 3차(30일)에 진행된 마을아이디어학교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마을활동가의 1:1 맞춤 상담, 실습 운영 공동체의 3개년 사업과제 발굴 이후 목표와 사업 방향을 정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아이디어학교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